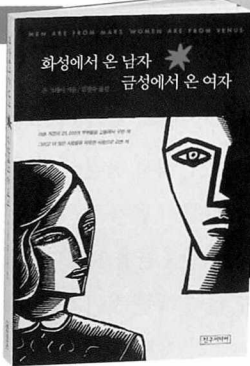


“‘차이’를 이해하면 사람들 사이의 결이 보여요”

카피라이터 김준희씨가 뽑은 존 그레이의 《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》



“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, 그 틈을 바로 보는 일, 이 책은 바로 우리가 간과했던 그 차이를 인정하게 만들어요.”



“문지마, 다쳐!” 무명이나 다름없던 탤런트 김정은을 일약 스타덤에 올린 CF 카피다. 한솔 PCS 018 광고에 등장한 이 말은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어처럼 번졌다. 그 당시 광고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지며 카피계의 여왕으로 등극한 사람이 바로 카피라이터 김준희씨(32, 메이트커뮤니케이션 부장). 김씨가 서가에서 뽑아든 책은 존 그레이의 《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》(김경숙, 친구미디어)다. 제목만 들어선 언뜻 공상과학 소설 같기도 해 책의 속내가 더욱 궁금해지는 이 책은 일명 ‘90년대판 사랑학 개론서’. 김씨가 이 책을 읽게 된 건 ‘같이 사는 남자’를 좀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다.

“책을 읽어가면서 누구나 ‘이건 내 얘긴데’라고 말할 만하죠. 하지만 내용이 무겁지 않다고 무작정 가볍게 넘길 책은 아니죠. 겉으로 남자과 여자의 근본적인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라고 말하지만, 그 관계는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확대해서 생각할 수 있죠.”

광고는 똑 같은 물건을 보면서 다름을 찾고, 그 미묘한 차이를 부각시키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생명이다. 그러다보니 김씨는 늘 일상에서 길어 올린 ‘특별함’과 평범함 속에 숨어 있는 ‘작은 차이’를 발견하는

데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한다. 여러 사람들 속에 뒤섞였을 땐 보편적이지만 좀더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은 대중들의 심리를 읽기 위해서다. 김씨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자신도 알지 못했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,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연습을 하게 됐다고 말한다.

“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, 그 틈을 바로 보는 일, 이 책은 바로 우리가 간과했던 그 차이를 인정하게 만들어요.”

카피라이터 경력 9년 차로 카피계에서 입지를 키워가는 김씨가 요즘 선보인 카피는 “하자! 카이홀맨”과 “대한민국 1%”. 그러나 김씨의 성공 뒤에는 자신의 카피처럼 “완벽함을 위해 1%도 양보하지 않겠다”는 철저한 프로근성이 배어 있다. - 박옥순 기자

1991년부터 쌓아 온 한국프리랜서그룹의
노하우는 「부끄럽지 않은 품질」입니다.

- 편집 디자인(사보, 사사, 홍보물, 교재 등) ● 자서전, 회고록집필 ● 교정 · 교열 · 윤문
- 사사(社史)집필제작 ● 취재대행 ● DB자료입력 ● 사보제작 ● 번역

Since 1991-----
(주)한국프리랜서그룹

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1-11(한서빌딩1105호)
Tel:(02)784-4447 Fax:(02)784-4404
E-mail: kfb@koreafreelancer.com
www.efreelancer.co.kr

※각 분야 전문가 모집(홈페이지 접수)